● 공모부문/생활글 :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

전서연(37. 목포여자고등학교 도서실)

"아, 큰일났어! 빨리 좀 나와 봐. 느이집 어머니가 지금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니까." 내가 자주 다니는 골목 입구 제과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다급했다. 우리 어머니가 길에 쓰러져 있다구?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린가 싶어 걸어나가보니 정말로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어머니!" 늘어진 어머니 얼굴을 가슴에 보듬어 안으며 나는 가슴이 콱 막혔다. 머리 속에서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도대체 왜? 누가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아, 세상에 전경들이, 그 차 있잖여. 닭장차... 거기서 아줌니를 탁 던져버리고 가드라니께. 썩을 넘들 같으니라구." 빵집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내 귓전에 와 부딪혔다. 눈물이 솟구쳤다. 어머니는 아침에 5·18 진상규명 결의대회에 가신다고 하셨다. 짐작은 했지만 역시 경찰들의 소행이었다.

대학병원 응급실. 그때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를 이동 침대에 눕히자 의사가 물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경찰이 닭장차 안에서 사람을 고문하다가 정신을 잃으니까 집 앞에다 던져놓고 갔습니다. 머리를 다쳤을 지도 모릅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깜짝 놀랐다. "경찰한테 두들겨 맞았다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해? 비겁한 새끼들. 우리는 못 가. 이 사람 여기서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져!"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택시 승차 거부는 당해봤어도 병원 입원을 거부당하는 일은 처음이었다.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나는 울고만 싶었다. 어머니는 병원 앰블런스에 태워져 다른 병원으로 갔다. 앰블런스를 태워주는 의사가 충고랍시고 우리에게 말했다. "다른 병원에 가면 경찰에게 맞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에 경찰한테 시달리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 부부싸움 끝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어서 계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고 말하자 병원에서는 입원 수속을 해주었다.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는 이틀이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차 안에서 어머니는 새파랗게 젊은 전경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다고 한다. 경찰들은 의자와 의자 사이에 어머니를 거꾸로 뒤집어 세워놓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군화발로 온몸을 짓이겼다.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여야. 위아래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어야. 아무한테나 욕하고 발로 차고. 니그들은 부모도 없냐고 소리치면 떼로 욕하고 달라들고. 참말로 그것들 사람 아니어야. 나는 그 속에 갇혀서 똑 죽는 줄 알었다. 차는 달리고 있는디 사람들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가는 똑 죽겄드라고. 나중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속에서 넘어올라고 함시로 어지러운디 그것들은 키득거리고 웃음서 살려 주라는 내 말 듣지도 않고 놀고 있어야."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언제나 가슴이 답답하고 온 몸이 떨린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머니가 당한 고통과 수모만큼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머니를 그렇게 짓밟은 전경들은 지금 그 일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그들이 실오라기만큼의 죄책감이라도 있을까? 아무리 독재 정권이 권좌를 쥐고 국민들을 농락하는 무소불위의 시대의 일이라 하지만 그들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단1분도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 이른바 민주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말이다.

소심하고 고지식해 살림밖에 할 줄 몰랐던 어머니가 경찰들에게 연행당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독재정권 타도의 투사가 되기까지. 어머니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던가? 자식 뒷바라지로 평생을 살 줄 알았던 어머니의 평범한 인생은 민주화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통해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5 · 18이었다.

1980년 5월. 우리 다섯 식구는 걸을 때마다 복도가 삐걱거리는 오래묵은 전세집에서 살고 있었다. 고3 수험생 영진이 오빠는 진한 숯검댕이 눈썹에 말수가 거의 없었다. 영진이 오빠에겐 뭐랄까, 남이 쉽게 범접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영진이 오빠에 대해 각별했다. 무겁고 신중한 큰아들의 모습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누가 봐도 다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가 티나게 영진이 오빠를 총애하는 게 무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질투가 났다. 오빠가 괜히 미웠다. 오빠만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리고 그 소원은 너무나도 빠르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1980년 5월 20일 석가탄신일. 그토록 과묵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사는지 헤아리기 힘들었던 오빠는 M16 총알에 관자놀이를 관통당한 충격적인 모습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나와 동생 곁을 떠났다.

그때 아버지는 20년 넘게 해오신 직업군인 생활의 정년을 맞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자신의 꿈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보통 주부였다. 아버지가 영진이 오빠의 시신을 염하고 새빨간 피를 당신의 와이셔츠 자락에 묻혀 들어온 날 이후,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변했다. 오빠 방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는 어머니를 보거나, 아무 말 없이 마루에 나앉아 무릎을 감싼 채 담배만 피워대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나는 오빠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껄끄러워 했던 오빠가 진짜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서! 6 · 25 전쟁도 아니고, 군대에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평화로운 나라에서 총을 머리에 맞고 죽어갈 수 있는지 내 어린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어떤 심정이었을지, 어떤 마음으로 그 시절을 버티어 내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리기엔 내 나이가 너무 어렸던 탓이다.

어머니의 슬픔 한자락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던 건 내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면서부터다. 이제 갓 10대에 접어든 내 딸아이가 곯아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머니의 고통을 어렴풋하게 짐작할 뿐이다. 내 딸아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해도 나는 죽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허깨비처럼 살 것이다. 틀림없이! 영진이 오빠를 망월동산에 묻고 가슴을 쥐어뜯을 때 이미 어머니는 허깨비였을 것이다. 허깨비처럼 밥을 하고 허깨비처럼 잠이 들었을 것이다. 당신의 혼은 이미 그때 영진이 오빠와 함께 망월동산에 묻혔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인생이 변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토록 사랑했던 큰아들의 죽음. 그저 공부하는 아들 뒷바라지 하다보면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하고 장가도 갈 날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소박하게만 살아오셨던 어머니. 당신의 희망이자 집안의 대들보였던 아들을 그토록 참혹하게 보내고 나서 어머니는 날

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저주하셨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던 아들이 당신보다 먼저 차가운 땅에 묻히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으리라.

엄마가 눈물을 닦고 오빠 방에서 나온 건 엄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였다. 5 · 18 유가족회.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끼리 만나면서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주부의 삶은 사라졌다. 엄마에겐 살아야 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졌다.

더없이 여성스러우셨던 어머니가 얼마나 과격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해인가 전두환 일행이 광주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소식이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 주변에는 사복 경찰들이 에워쌌다. 어머니가 뛰쳐나가 행여 전두환 일행과 부딪치기라도 할까봐 아예 집에 감금해놓겠다는 의도였다.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마저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는 그들의 처사는 두고두고 분노를 자아냈다. 집에 가택연금을 당한 어머니와 유족들은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탈출 계획을 짰다. 자식을 죽인 사람이 버젓이 살아 돌아다니는 것도 목불인견인데 광주에 와서 활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베란다를 타고 몰래 담을 넘어간 어머니는 결국 경찰들의 포위망을 뚫고 행렬이 지나가는 길에 당도했다. 다른 유족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분노를 막을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가택연금 행위가 어머니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어머니와 유족분들은 차량 행렬을 향해 준비해 간 계란을 던졌다. 혼비백산한 경찰들은 순식간에 그들을 연행했다. 어머니는 조서를 받으려고 끌려 들어간 경찰서 조사실에서 전두환 사진이 걸린 액자를 발견했다. 그렇지 않아도 끓어오르는 울분을 주체하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손지갑을 들어 사진을 향해 던져버렸다. 와장창 유리가 깨어지고 원수의 사진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들이 몰려왔지만 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손지갑 속에는 차량행렬에서 미처 쓰지 못한 커다란 돌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에 얽힌 또 다른 일화는 망월동에서 있었던 일이다. 5 · 18기념식 맨 마지막에 전두환 일당 화형식을 하기로 정하고 화형식에 쓸 허수아비를 만들었다. 대나무에 동그란 솜이불을 붙여 사람 모양을 만들고 옆에서 구경하던 내가 매직으로 눈 코 입을 그려넣었다. 만들어진 허수아비를 경찰들에게 들키지 않게 망월묘역까지 가져가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였다. 화형식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눈치챈 형사들이 허수아비를 탈취해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회 회원들은 형사가 타고 온 차를 향해 떼로 몰려가 불을 질렀다. 방화를 주동한 혐의로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나는 그때 대학 졸업반이었고 교생실습 기간이었다. 정장을 갖춰서 출근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청바지에 운동화밖에 없었던 나는 정장을 준비할 겨를도 여유도 없었다. 우리 집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6월 항쟁의 시기였다. 아버지는 날마다 시위대열에 합류하셨고 어머니는 구속되어 계셨다. 나는 최루탄 냄새에 절어 어머니가 계신 광주교도소를 찾아갔다. 어머니의 얼굴은 의외로 편안하셨다.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영진이 오빠의 죽음 이후로 어머니는 너무나도 많이 변하셨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시던 주부에서 푸른 수의에 포승줄로 묶인 죄

인이 되어 오히려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니. 어머니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원한 덩어리가 있기에 저토록 꼿꼿하시고 굽힘이 없으실까. 나는 부끄러웠다. 철창 너머에 흰 고무신을 신고 서 계신 어머니 앞에서 겨우 교생 실습에 입을 옷 걱정이나 하고 있었으므로. 하지만 어머니는 내게 당신이 광주 시민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을 내어 주셨다. 어머니 일을 전해들은 5 · 18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이 끊이지 않고 영치금을 보내주셨단다. 나는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모은 영치금으로 교생 실습에 입을 정장을 마련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살다보면 구걸하지 않아도 저절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 때 나는 광주 시민들과 5 · 18 유가족을 통해 배웠다.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혀를 끌끌 찼지만 우리 가족이 그때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풍족하게 받으며 산 적은 없었다. 나중에 어머니는 민주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셨다.

어머니는 5 · 18청문회가 열리던 해, MBC에서 제작한 518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라는 프로그램에 주인공으로 나오셨다. 그 프로그램은 재방송까지 하면서 온 나라에 5 · 18 진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송의 힘이 크긴 큰가 보다. 5 · 18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목이 아프게 경찰들 앞에서 악을 쓰고 몸부림을 쳤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5 · 18을 잘 알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노래"가 방송되자 전국적으로 5 · 18 진상을 규명하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대학에 초청되어 연사로도 활약하셨고 각종 매스컴의 표적이 되어 인터뷰를 했다.

나는 기자들이 싫었다. 그들은 말한다. "그때 어떻게 해서 아들이 죽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라고. 어머니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를 더듬었고 끔찍하게 죽어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쥐어짜듯 다시 떠올려야 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그들은 번개같이 사진을 찍었다. "이쪽 방향을 보고 좀 울어 주시죠. 다시 한번만 감정 잡고 울어 주시죠."라고 말하면서.

나는 기자들이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열매처럼 따먹으면서 5월 풍경 기사 취재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마치 남의 고통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같아 싫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몇 번씩 당신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의 장렬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했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희생으로 영진이 오빠의 죽음은 의거가 되고 항쟁이 되었다.

영진이 오빠는 명예 졸업장을 받았고 오빠가 다니던 학교 입구에 추모비까지 세워졌다. 영문 모르는 어린 후배들은 영진이 오빠의 추모비를 보며 물을 것이다. 이 사람은 왜 죽었나요? 라고. 영진이 오빠의 죽음은 그래서 역사가 된 것이다. 죽어서도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다. 나는 오빠가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어떠한 순간에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가르쳐 준 두 분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다. 오빠가 우리 가족에게 남기고 간 것. 한 순간도 정의롭지 않게, 진실하지 않게 살지 말라는 전언. 나는 언제까지나 그 전언을 가슴에 새기며 오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이다. 어머니가 그러했던 것처럼.